<신사도 운동>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신사도 운동 -1>

1. 개 요

신사도 운동은 New Apostolic Reformation, 혹은 New Apostolic Movement이라고 한다.
광의적으로 본다면 현대에 나타나는 성령의 기적, 에베소서의 오중직임(엡4:11 사도. 선지자(예언자) 복음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섯가지 직분) 회복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운동이 비교적 늦게(2000년)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여러 집단의 총체처럼 오해받는 것이다. 또한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서 마감되었다는 기존교단, 신학자와 충돌한다.
신사도 운동은 제3의 물결이라고도 불리며, 피터 와그너 등 근본주의 개신교 계통에서 출발한 부흥운동이다. 사도와 예언자의 직위를 회복한다는 주장이 요점이다.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미국은 물론이며 한국에서도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참여 금지/교류 금지로 의결되었다. 열성적인 신앙은 인정하나, 극단적인 신비주의, 기복신앙 등이 개신교의 본 의미에서 심하게 벗어난다는 것이 이유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신사도 운동 관련 단체가 정치권 및 대형 교회와 결탁하여 활동하므로 더욱 문제시된다.

2. 기본 신앙

신사도적 개혁은 오순절 및 은사주의 운동, 그리고 성령이 각 신자들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역의 성격에 대한 이 전통들의 해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운동은 각 신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직접적 계시, 예언, 그리고 치유와 같은 기적 행사를 포함한다. 교회를 구원 받은 신자들의 참 몸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복음주의 개신교가 그러하듯이 신사도적 개혁은 교회 리더십의 성격에 관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개신교 전통과 구별되려고 한다.
5중사역의 교리가 특히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3. 교리와 사상

신사도 운동은 대략 다음과 같은 교리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
-. 사도와 선지자가 아직도 존재한다
-. 성경 외에 직통계시가 존재한다.
-. 기적과 표적의 집회를 강조한다.
-. 안수를 통하여 성령과 은사, 능력을 전이(임파테이션)시킬 수 있다.
-. 세상을 종교, 경제, 문화, 정치, 교육 등 7개의 권역(칠권역, 일곱 산)으로 나누어, 이 모든 분야를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지배하고 통치하여 지상에서 하나님나라를 이루면, 예수가 재림하신다.

그 중요한 수단과 방법은 "부의 이동"(돈)이다.(두 기둥)

-. 기독교는 옛 포도주이며 헌 가죽부대로서, 신사도개혁운동의 새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정통신학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단교리와 사상도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개방신학)

-. 종말적으로 신사도 운동의 교회가 크게 부흥되며 대다수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한다.

-.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설하면 조만간 종말이 올 것이다. 우리 세대가 될 수도 있다.

-. 무슬림이 쳐들어오면 그들 80% 이상이 죽을 것이고,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다.

<사도적 계시>

피터 와그너는 오늘날을 '제2의 사도시대'라고 보며 '사도직의 현존성'을 주장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선지자는 예언하는 은사를, 사도는 사도라는 '영적은사'를 받았으므로 사도라는 '직임'도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신사도 운동가들은 엡4:11에 근거해 '오중사역은사'로 ①사도 ②선지자(예언자) ③복음 전하는 자 ④목사 ⑤교사라는 다섯가지 직분이 현재에도 모두 존재한다고 본다. 이들 사역은사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 더해져야 본래 하나님이 계획한 신약성경적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교회를 비롯한 공교회는 정경이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적 계시를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성령의 지속적 역사를 인정하는 오순절 교단도 오늘날 사도와 예언자의 명칭을 인정하지 않지만 와그너는 이 두 직분을 인정한다.

(와그너 역시 자칭 사도들을 통해 2000. 4. 28. 사도로 임명되었다)

신사도 운동의 큰 문제는 성서를 매우 자의적이며 경험에 따라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예언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통 계시처럼 여기는데 있다.

※(개신교 전통적 견해: 사도적 직분은 주께서 세우신 13사도(12+바울)뿐이고, 그 어떤 의미로도 사도적 인물의 계승이나 사도적 직분의 계승은 있지 않았고, 단지 사도적 가르침의 계승이 있을 뿐" 이라는 것이다. "신약 선지자(예언자)들의 영감이 그쳐졌으므로 선지자직도 그쳤으며, 선지자적 직임은 가르치는 '교사'의 직임 속에 편입됐다"며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고, 직접적인 계시가 지속된다는 것은 최종 계시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존해야 한다"며 신사도 운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시대의 이적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도적 이적과 같이 계시를 확정해 주며 선포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령은사 정지론)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들이 성경의 계시와 동일한 계시를 받을 권위를 지닌다는 의미로 '사도성'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단으로 정죄돼야 한다)

3-1. 신사도 운동 관련 교회 및 목회자들의 특징

아래 나오는 특정 용어를 자주 사용한다면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 네트워크라는 말을 자주 쓰며 교회와 세상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재정의 산이 점령되어 세상의 부가 교회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한다.

-. 크라운 재정 세미나 등의 재정 프로그램들을 교회로 끌어들인다.

-. 예언과 접신을 강조하고 빈야드식의 쓰러짐과 뒹구는 집회를 자꾸 하려고 한다.

-. 신사도단체가 주관하는 집회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에서도 광고하며 참여를 종용한다.

-.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뜻이라고 한다.

-.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말을 자주 한다

-. 예수를 예슈아라고 부르고 유다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호칭한다.

-. 새 부대, 새 술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며 자신들이 새 부대와 새 술이라고 말한다.

-. 정치적으로 기독교 우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극우적인 태도로 정치에 자주 개입한다.

3-2. 신사도 운동에 빠진 신자들의 특성

신사도 운동이 주로 청년층을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 청년들이 특히 많이 몰린다. 이들에게 하는 예언은 대체로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겠다.", "네가 하는 일을 이루겠다." 이런 식이다.

4. 실 상

4-1. 개신교에서 본 사도의 직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은 사도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이것이 예언 사역을 하는 리더자들에게 계승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개혁신학에서는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은 매우 특수한 직분이며 신약시대, 혹은 초대교회 시대 이후로는 사라진 직분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사도와 예언자에 대한 개방적인 신학적 자세를 견지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에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건 어떤 공신력이 있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주장에 그치는 것이다. 개혁신학의 경우 보통의 신학교에서는 신약시대 이후 사도의 직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굳이 사도라는 명칭을 쓴다면 그것은 계승이 아니라 사도의 정신으로, 사도의 마음으로 정도로 쓰는 것이 무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그 시대 초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다.

개신교에서는 이들을 '속사도'라고 하며 주후 2세기경의 이러한 사람들을 초대교회 교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경에서 사도직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곳도 없기에 논란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가 존재하느냐의 여부보다도 현시대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류 개신교단에서 사도는 성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여겨지기에 사도의 존재 여부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요한의 묵시록 완성 전에는 성경이 정립되지 않았기에 사도들이 증거하였으나 묵시록이 완성되고 신구약 정경이 확립된 이후에는 성서를 통하여 계시되기 때문에 사도의 역할은 끝난 것이다.
즉, 예수라는 주춧돌 위에 사도들이 기초를 쌓아서 완성한 것이 신약성서이다.
성서는 완성되었으며 사람이 임의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묵시록을 끝으로 성서는 완성된 것이다.

4-1-1. 다른 기독교계 종파의 경우

기독교계 종파 중 가톨릭·동방 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성공회에서는 사도직이 계승된다고 가르친다. 이것이 가시적인 형태의 이른바 사도 계승이다. 한 교회가 사도로부터 이어온 정통 신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 기준으로써 그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한 교회를 담당하는 주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을 대리해서 현장 사목을 하는 이들이 신부이다. 주교직은 다른 주교가 안수하는 것으로 계승되며 이를 통해 사도직이 전수된다고 한다. 신설 교구에는 다른 주교들이 해준다.
가령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로마의 주교로서 사도 베드로의 후계자이며, 동방 정교회의 대표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는 사도 안드레아의 후계자이다. 가톨릭과 정교회 측으로부터 사도 계승을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회에서도 종교적 대표인 캔터베리 대주교는 열두 사도는 아니나 예수를 매장한 아리마태아의 요셉의 후계자이며 이를 통해 주교 계승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신사도 운동을 하는 집단처럼 여러 명의 사도가 있거나 전위(임파테이션)를 통하여 사도가 되는 경우는 없다. 사도를 인정하는 다른 교파라고 하여도 사도직은 매우 특별한 직분이지 신사도 운동처럼 리더나 목회자를 두고 사도라고 하지는 않는다.
신사도 운동에서만 자신들의 권위를 위해 자신들을 사도들로 포장하는 것뿐이다.

4-2. 현상에 대한 지나친 집중

이 운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표적인 몇 가지는...
-. 쓰러짐, 울부짖음, 임파테이션 : 신사도 운동의 광신적인 집회를 대표하는 행동들.
인도자가 "성령", "불" 특정 단어를 외치면 갑자기 쓰러지는 식이다. 쓰러지지 않는 경우 손으로 밀쳐서 억지로 쓰러뜨리는 경우나, 심하면 쓰러지지 않는 참가자에게 옆에 있던 도우미가 귀에다

대고 "이 부분에선 쓰러져야 보기 좋아요." 하고 종용해 초신자의 한국 교회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는 짓을 자행하기도 한다.
임파테이션은 (자칭) 사도가 가지고 있는 영적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위의 쓰러짐 현상 등을 통해 전수해주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쓰러짐이나 임파테이션 같은 것들은 기독교 역사상 (성경이 기록되고 있던 시기에도) 나타난 적이 없는 현상이다.
-. 웃음 터짐 : 신사도 운동의 인도자들의 강연을 듣다가 이유 없이 박장대소를 터뜨리는 현상.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일 수 있다.
-. 금이빨 :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으나, 정작 연구소에 가져가서 금이 검출되는 일은 고사하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변한 것이라는 사례는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다. 신사도 운동 단체에서는 "믿음이 없으면 사라진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없어진다." 식으로 주장하므로 본 사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이들은 입 속에 일어난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는 조명에 노란빛이 강한 손전등을 쓰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금가루 : 집회 중 금가루가 휘날린다는 것. 특수분장용 가짜 금가루를 이용한 사기극으로 판명.
-. 난무하는 천국 지옥 간증 등 성경을 가감하는 행위. 천국과 지옥은 죽고 나서야 알 텐데.
-. 각종 예언 사역 : 이성을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해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예언이다.
신사도 운동의 경우 이 현상을 신앙의 척도, 혹은 구원받은 증표, 또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1970~80년대에 순복음교단에서는 방언을 구원받은 증거로 주장하기도 했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을 사도와 동급으로 보거나 예언의 권위가 있는 예언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그에 대한 설명은 없다. 마가복음에서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말씀은 있지만 이는 사도가 아닌 모든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표시이다.
그리고 성서 어디에도 기적에 집중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고 또 무시하라고 가르친 부분도 없다. 결국 해석과 적용의 문제다.

4-3. 무책임한 발언

데이비드 오워의 한국전쟁 예언 소동을 들 수 있다. 그의 예언이 연평도 포격사태로 성취되었나 싶었지만 이내 잠잠해졌던 일이 있다. 물론 자신들의 말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데, 점쟁이들이 써먹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되면 자기 예언이 맞은 거고, 아니면 회개치 않았다거나,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둘러대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이들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는 예언들을 보면 모두 과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었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라 검증 자체가 되지 않는 것들이며, 검증 가능한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하나도 맞는 것이 없었다.

이들의 사도로 활동한다는 신디 제이콥스의 경우 예언이 60~70%만 성취되어도 상당히 잘 맞힌 것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의 예언은 100%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성경에서는 점치는 행위나 개인적인 예언은 금지하고 있다.

4-4. 세대주의적 종말론

이들이 주장하는 Back to Jerusalem 운동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학적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복음이 서쪽으로 퍼져나가는데, 현재 복음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군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최종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지나,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점령해야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이는 다니엘서의 기간을 몇 년으로 해석해서 그 시기가 다 되고 나서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의 한 분파와 다름이 없는 것이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일종의 시한부 종말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대주의에서는 교회의 원형을 구약의 이스라엘로 보며, 결국 모든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회들도 부정하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당연히 중동의 무슬림을 비롯한 이교도들은 정복의 대상일 뿐이다.

이들의 종말 교리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① 전천년주의(세대주의적) :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한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수가 공중재림하여 자신들을 휴거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② 후천년주의 :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가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의 7권역을 모두 점령해서 지상천국을 이루어 놓고 예루살렘에 깃발을 꽂아 자신들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들면 그때에 재림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재건해서 종말이 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성전을 지을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겟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다. 겉으로는 대부분 전천년주의적인 관점을 따르고 있으나 그들의 행동들을 보면 후천년주의에 훨씬 가까운 모습이다. 주류 개신교가 역사주의적 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강조하는 것과는 대비된다.)

4-4-1. 종말을 위한 영적전쟁

영적전쟁 역시도 신사도 운동에서 유래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종말, 즉 신정국가 건설을 위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관련 집회를 하기도 하였으며, 이쪽 지역 선교를 빙자한 여행을 하면서 '크루세이더'(십자군)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였다.

십자군이라는 단어는 이슬람권에서 절대 써서는 안 될 이름이다.

4-4-2. 지나친 물질주의

영적도해와 같은 것을 들면서 7권역의 세력을 교회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루는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이 교회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6년에 올림픽공원에서 있었던 신사도 운동의 집회말미에 체안은 헌금을 위해 장황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사60:1을 근거로 "영광이 임하고 추수가 증가하면 부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은 선교과업을 위해 부요케 하시길 원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3세기 교회사에 들어온 궁핍의 영을 끊어야 부요해질 수 있다"며 "마틴 루터는 종교의 영과 단절했으나 궁핍의 영과 타협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 패배의식에 젖어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도적으로 한국에 궁핍의 영을 끊도록 사명을 주셨다"며 헌금을 인도했다.
그는 "지금부터 궁핍의 영을 끊고 부요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겠다"며 좀 더 많은 양의 헌금을 강조했다. 또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처음 주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다"며 "액수를 안 갖고 왔으면 '하나님 내일 갖다 내겠습니다'라고 쓰라"고 헌금의 액수로 고민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물질적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즉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비즈니스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약속인데, 조건은, 많이 심어야 한다. 많은 헌금을 바치면 그 대가로 더 큰 물질적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참가자들을 향한 기도: 제게 주신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종교의 영을 묶나니, 궁핍의 영을 묶나니, 끊어버리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다시 심나니, 믿음으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더 나은 직장을 받습니다. 월급의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승진을 받아들입니다. 은총을 받아들입니다. 유업을 받아들입니다. 모든 빚이 끊어졌습니다. 수표가 내게 날아옵니다. 형통함이 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집회 참가자들은 헌금봉투를 흔들며 체안의 기도를 따라했다. 바구니에 있는 수표를 긁어모으는 시늉을 내며 허공을 향해 양손을 휘젓는 사람도 보였다. 궁핍의 영을 쫓는 기도를 하는 내내 곳곳에서 허리를 뒤로 비틀며 "으~~ 허억~!" 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월간 교회와신앙 2006. 6. 13)
지극히 이원론적인 사고도 문제지만 교회가 마치 악령에 점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약속을 완벽하게 깨뜨리는 행위이다.

4-5. 신학 무시, 수단을 가리지 않는 교회 성장 모델

이들이 한국 개신교계에서 인기를 끄는 원인이기도 하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도 무방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단의 신학이나 주장도 모두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소위 개방신학을 주장한다. 이걸 주장한 피터 와그너는 정작 기존 교회의 신학은 잘못되어서 멸망해야 할 것으로 주장한다.
실제로 피터 와그너나 다른 신사도 운동의 지도자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큰 믿음교회, 온누리교회가 자신들의 운동에 동참할 때는 새 포도주라고 치켜세웠지만, 한국의 주요 교단들이 이단성이 있다고 하고 자신들을 경계하자 종교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바로 비난하였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번도 "나는 삼위일체"라고 직접 말하는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삼위일체라고 믿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신학자들이 정리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며, 전통적 방식인 전도를 통한 교회 성장이 아닌 수평 이동을 통한 신사도 교회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때문에 교단 차원에서 이단이나 교류금지 등으로 결의해 놓고도 대형 개신교 교회들은 이들과 교류하는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

4-6. 귀신론. 땅밟기. 영적도해. (신사도 운동-2 참고)

각 지역의 영적 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을 대적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영적도해에서 하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각 지역의 영들은 하나님과 맞먹는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끝까지 싸워야 하는 복음은 매우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각 지역별 보스에 도전하는 이들의 주장은 예수가 온 의미를 요한1서 3장 8절을 들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이 성서 구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문의 내용은 마귀 자체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 즉 마귀로 인해 발생하는 죄를 멸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귀신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세상이 착한 신과 나쁜 신의 권역으로 나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원론이다. 참고로 이원론은 초대교회부터 꾸준히 이단으로 배척되어져 온 사상이다.
이런 영적도해 사상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땅 밟기이다.
기도는 영적전쟁의 무기인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악령들과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신 싸워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4-7. 정치 간섭

미국 보수 개신교인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은 오래된 일이지만 신사도 계열의 트럼프 칭송은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보수주의자도 아닌 우파의 성향을 띄고 있으며, 미국 온건 복음주의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상숭배를 기독교 트럼프주의라고 부르며 일종의 이단으로 보기 시작했다. (참고. 한국 전광훈목사)

5. 반론

5-1. 명칭의 낙인찍기 논란

신사도 운동의 정식 명칭은 신사도적 교회개혁운동이다. '사도적'이지 '사도'가 아니다.
이 운동 자체의 의의가 사도적인 교회 체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 내에서는 개신교회의 약점인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를 극복할 방법을 사도적인 네트워크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한 교회에서 주최하는 신사도 집회를 가면 누가 임명하는지 서로를 사도라고 칭한다.

5-2. IHOP과의 교리적 차이

정통 신사도 계열과 IHOP 계열의 교리가 판이하게 다르다.

정통 계열은 '승리의 종말론'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에 의한 사회의 발전을 중시하고 대환란을 지지하지 않는다.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합쳐진 개념인데 후천년설에 가깝다)

반면 IHOP 계열은 사도적 전천년설이라는 변형 세대주의 종말론을 지지한다. 기존 세대주의 종말론이 환란전 휴거설을 지지한다면 이쪽은 환란후 휴거설을 지지한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신사도 이론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도 끝에서는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보인다. 실제로도 이쪽은 스스로 자신을 신사도 계열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운동 내에서 같은 주제로 말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국내 신사도 사역자들의 경우 순복음 계열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주류다 보니 결국 IHOP식 종말론 교리를 채택하게 된다.

<ERMC의 견해>

1. 사도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것에 대해 오순절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사도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어 임명하시고 사역에 대하여 명하셨던 것이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친히 사용하셨던 것이다.

(마1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순절 이후의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로 부르신 뜻인 마28:20절의 사역을 행하는 것이다.

이 사역은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이다.

지금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사도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 수 있다.

사도들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들은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에 비해, 지금의 우리들은 성경과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 이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 '신사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사도시대'는 열두 사도로서 끝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저들은 12사도와 같이 자신들이 이 시대의 부름 받은 사도라며 마12:20절을 인용하여 말씀보다 은사를 강조하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리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사도와 선지자와 이단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은사에 대하여>

신사도 운동은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신유, 축사. 예언.. 신비주의로 영접케 하여 자신들의 무리로 삼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를 사탄이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사탄도 유사한 은사를 줄 수 있다. 이들에게 나타나는 은사(금가루. 금이빨. 쓰러짐...)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다. 그 은사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들은 성령의 은사를 빙자하여 악한 것들이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은사의 본질>

믿음을 돈독히 하고 신앙의 유익과 온전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주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역자들이 축사, 치료, 예언(?)으로 신비주의와 함께 개인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들 있다.

<교회의 본질>

초대교회는 메시아에 대한 초석을 다질 때였다. 지금의 교회와 같이 건물과 조직이 형성되지 않았다. 한사람, 한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사도나 집사 또는 은혜받은 자들을 통하여 기도를 중심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
당시에는 구약의 전승은 있었으나 신약은 없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알아가던 때였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와는 다른 형식의 모임이었다. 지금의 교회는 집단체제 형식이 되어있다.
주님의 뜻 보다는 교회의 존립(existence)이 먼저가 되고 있는 실상이다.

<신학자와 복음주의 자>

신사도 운동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단적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부정하며 이단시하고 있는 소수의 신학자들을 비롯하여 자칭 복음주의자들의 주장도 잘못되어 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는 신약시대 이후 정지 되었고(은사정지론), 또한 하나님의 계시도 성경외에는 나타나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실체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무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부정을 넘어 미신적으로 판단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것도 신사도들과 같은 신비요 이단적인가? 성령의 역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하여 악한 영들로부터 구원의 역사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사도 운동 - 2 >

1. 영적도해란 무엇인가?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도해는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중요한 교리이며, 신사도 운동의 영적도해에 관한 책들은 현재 WLI(와그너신학교)에서 공식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간략하게 영적도해를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을 지도로 표시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신들을 쫓아냄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영적도해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곧 하나님과 사탄이 이 세상에서 서로 대등한 세력을 갖고 대립하고 있다"는 이방 사상인 헬라적인 이원론에 기초를 둔 것이다.

영적도해를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영역을 정한 다음 땅밟기나 대적기도, 선포 기도를 하여 귀신을 축사하면 그 지역의 귀신이 쫓겨 나가고 약화되며 하나님의 영역은 반대로 확장된다는 것이다.

※밥 베켓(영적도해, 지역을 바꾸는 기도), 피터 와그너(지역사회에서 마귀의 진을 헐라),
존 도우슨(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 신디 제이콥스, 조지오티스, 루이스 부쉬등이 영적도해를 주장한 자들이다.

<와그너 주장 : 다행히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대적들을 멸하시도록 인도하셨던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때에 살고 있다. 새 언약과 더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우리의 전투는 더 이상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엡6:11).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11:12), 우리가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 땅을 다스릴 수 없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공격적이 되고 원수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도미니온사상)>

전략적 수준의 영적싸움을 신사도 운동에서는 '예언적 중보사역'이라고 부른다.

이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보자가 신약시대에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보기도와 용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그들은 지금도 중보자가 있다고 주장하며('알리스 스미스', '도리스 와그너') 중보기도는 예언적인 기도라고 가르친다, 또 이들이 주장하는 영적전쟁은 선포기도, 대적기도, 귀신축사를 말하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땅 밟기인 것이다. (※영적싸움의 중보자는 성령님이시다. 사역자는 성령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매개체이다)

베뢰아나 신사도 운동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며,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며, 영적도해와 백투예루살렘을 주장하는 인터콥 최바울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데,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사역이 있다고 한다.
신사도 운동의 영적도해, 영적전쟁, 축사, 땅밟기 기도, 예언행위, 대적기도, 선포기도는 모두 극단적이며 변질된 세대주의 이원론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피터 와그너 : 걷는 기도와 예언적 행위 :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한다. 그러나 전투기도는 교회 밖으로 나가 지역사회에서 하는 기도이다. 교회 안에서의 기도는 대부분 목회적인 기도이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의 기도는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기도로 바뀐다. 그러나 현장에서 드리는 기도가 멀리서 드리는 기도보다 정세와 권세를 격퇴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2. 신 귀신론

<요일3:8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영적도해는 철저한 이원론을 근거로 한다. 즉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구도, 선과 악의 대결구도, 영과 육의 대결구도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탄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이러한 이원론은 베뢰아나 다락방의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피터 와그너의 귀신론은 거의 무속적인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적인 사물에도 귀신이 붙어 있다고 하며, 물귀신도 등장한다.
그들은 항상 필요에 의하여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인용한다.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자연적인 사물에 붙은 귀신이나 물귀신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다. 계시록에서 언급하는 음녀는 어느 특정한 여자가 아니며, 바벨론은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루이스 부쉬'는 10/40 창문을 주장한 사람인데, 10도와 40도의 직사각형 지도안에 불교, 힌두교, 이스람교등이 밀접한 지역있는데, 그 지역을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므로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다.
그들이 영적도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선포기도, 대적기도, 땅밟기 기도가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전도할 때 먼저 지역의 귀신을 주술적인 방법으로 쫓아낸 적이 없다.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점은 언제나 어느 지역의 귀신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신앙의 대상과 삶의 방법을 문제 삼고 있었을 뿐이며, 언제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전도시키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와 선교는 지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3. 땅 밟기 기도

구약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한 예표적이며 상징적인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성경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주의적인 주장들도 다 성경적이 될 것이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은 신약에서 모형과 예표가 되어진다.

<수 1: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성경을 모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될 수도 있으며,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만을 쫓는 일이 되거나, 모형과 예표를 따르는 매우 이상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과연 기독교인이 밟는 땅은 모두 기독교인의 소유가 되는가?

본문에서 땅을 밟는 대로 소유가 된다는 의미는 장차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의 사방 최대 경계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땅밟기를 하는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사건을 인용 한다.

※신사도 운동의 주권 신학(도미니온)은 세 가지 기본 신념에 입각한다:

1) 사탄이 아담과 이브의 유혹을 통해 이 땅에 대한 사람의 주권(지배권)을 빼앗았다.

2) 교회는 주권을 사탄으로부터 되찾아 올 하나님의 도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지배권을 회수한 것이다. 교회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다)

3) 예수는, 교회가 지구의 정치사회적 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장악하여 주권을 확립할 때까지, 재림할 수 없거나 재림하지 않는다.

첫 번째 주장은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이원론적인 주장이며, 두 번째 주장은 베뢰아의 주장과 같은 잘못된 교회관이다. 특히 피터 와그너는 “예수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베뢰아 성락교회, 다락방의 주장과 유사하다. 세 번째의 항목은 그들이 인위적인 통치적인 주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수는 재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선포기도를 하면 병도, 산불까지도 다 해결되었다고 함으로서 자신들을 신격화시키는 이단들의 수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지나간 과거사에 대해서 모두 자신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공로를 주고 있다. 이들의 가장 문제점은 자신들로 하여금 악과 가난과 재앙까지도 모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부의 이동이 온다고 주장 한다.

전략적 영적 전쟁이란 와그너를 중심으로 한 신사도개혁운동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이론이다.

<인터콥 최바울 세계사상도해: 사단이 무소부재하고, 전지전능하지 못한 제한된 영적 피조물이기에 그의 졸개인 악령들과 더불어 세계의 중요 지역에 중심 거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론이다. 선교는 이 이론에 있어서 세계의 중요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악마의 정체를 드러내고 쫓아내면 되는데 이렇게 될 때 선교현장의 교회설립과 교회성장 그리고 모든 선교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장악하는 지역 악마을 쫓아내고, 예수님 보혈의 은총으로 그 지역을 회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으로 선교를 수행하려면 우선적으로 단기 정탐 팀을 보내어 그 지역을 장악하는 악마의 정체를 규명하고, 그 지역의 교회지도자들과 연합하여 기도운동을 벌여야 한다. 지역 악마의 정체를 알아내고, 기도운동으로 악마가 추방되었다는 확신이 들때 대규모의 선교 팀을 조직하여 그 지역 전역으로 흩어져서 각종 선교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들의 문제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고 사단에 의해 변질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사도 운동 - 3>

1. 신사도 운동가

신사도운동의 중심적인 인물인 피터 와그너가 흘러 신학교의 교회성장학과의 교수로 있을 때 존 윔버를 만나 빈야드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캔서스시티 예언자그룹(KCF)이었던 마이크 비클과 밥 존스를 만나게 되므로 예언사역을 접하게 된다. 그 이후에 피터 와그너는 이러한 예언운동과 빈야드운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신사도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각 지역의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 개념을 강조하면서 널리 알리고, 이에 따라서 영적 도해를 하여 각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과 투쟁해야 한다고 하며, 이런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며,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오늘날도 성경적 권세를 지니고 교회를 통치하는 사도들이 있다고 하면서 현대의 사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며 강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독특한 통치 신학(dominion theology)을 제시하면서 여러 면에서 신사도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이다.
피터 와그너는 1993년에 Global Harvest Ministries를 시작해서 2011년까지 총재로 있었고, 현재는 Global Spheres를 위한 사도적 대사라고 자칭하면서 이 운동을 하고 있다.

신사도운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인 국제 기도의 집(IHOP)의 마이크 비클(Mike Bickle). 공식적인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그는 1982년 Saint Louis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1982년 6월에 어거스틴이라는 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주께서는 당신을 새로운 방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라는 지시적 예언을 주면서 캔자스시티로 이사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한다. 이에 근거하여 1982. 11월 캔자스시티로 가서 The Kansas City Fellowship 이라는 교회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1990년에 존 윔버(John Wimber) 중심의 빈야드교회연합에 가담하여 1996년까지 같이 활동했다.

California Pasadena. 추수반석교회(Harvest Rock Church)의 안재호 목사도 중요한 일원이다. '체안'(Che Ah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는 피터 와그너가 조직한 12사도회의 초기 멤버이며, 2008년에 있었던 타드 벤틀리(Todd Bently)의 사도 임직식에서 피터 와그너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신사도운동의 대표적인 소위 '사도'이다. 그는 현재 약500명의 신사도운동교회 지도자들이 연합되어 있는 HIM(국제추수선교회, Harvest International Ministries)을 자신의 친구인 루 잉글(Lou Engle)과 함께 이끌고 있으며, 특히 피터 와그너의 리더쉽 연구소 WLI (Wagner Leadership Institute)의 대표 강사로 활동하면서 신사도운동의 핵심 개념인 임파테이션에 대해서 강의한다.
당시 목사였던 체안은 자신의 친한 친구 루 잉글과 함께 1994년 토론토 에어포트 교회의 John Arnott이 인도하는 빈야드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가 웃음 임파테이션을 동일하게 경험했다고 한다.

빈야드 집회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술에 취한 듯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드러누워 방언하거나, 울거나, 짐승 소리를 내거나, 주체하지 못하고 한없이 낄낄거리거나 하는데, 체안 목사에게는 웃음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1995년 자신의 교회에서 John Arnott 초청집회를 열어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하나로 Bill Hamon이 있다.
자신들을 통하여 주시는 계시가 성경을 보충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성경과는 대립되는 말을 한다.
그의 "하나님 아들들의 나타남"에 대한 교리는 새로운 뛰어난 초자연적인 영적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온 땅을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복할 것이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요엘의 군대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이미 온전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을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때로는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 재림 하지 않고 우리들 안에서 재림하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들림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사악한 자들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닌 바울도 사도였으므로 다른 사도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며, 에베소서 4:13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아직 이르지 못했으므로 "사도직이 오늘날도 존재함이 분명하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2:7의 "우리"에 소위 사도가 아닌 이들도 들어 있으므로 사도는 그들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논의한다.
이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으로 오늘날 사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성령신학교는 사도와 선지자를 길러낸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성경 이외에 예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고 여러 번 말하고 있다.
자신이 기도회를 인도할 때 "성령께서 자신의 영에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2. 일반적 문제점들

본문이나 다른 성경 구절에 있지도 않은 "중보자"(intercessors)라는 직분을 그들이 삽입하고 있는 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독특한 직분으로 이를 언급하면서 이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직분이다"하고 있다.
오늘날 중보자들로서 그들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알리스 스미스', 와그너의 부인 '도리스 와그너'.
와그너는 이런 것이 에베소서 4:11에 있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중보자는 촉매제처럼, 예언자와 사도들의 길을 예비하는 지극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는 주목할 만한 직분이기 때문에 꼭 언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목사, 교사, 예언자, 사도와 함께 교회의 "5중 직분"이라고 언급하는 것이다.

3. 근원적인 문제

이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오늘날에도 예언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와그너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왔었다.

“예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특정한 구성원들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능력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으신 선포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즉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며,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것은 예언자가 받은 은사”라는 것이다.

와그너는 이런 예언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생각하며 1999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2,500명의 소위 예언자와 예비 예언자들을 모아 전국 예언자 학교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국제 기도의 집(IHOP) 대표로 있는 마이크 비클은 자신이 목회하는 메트로 교회에는 예언적인 꿈, 이상, 그리고 환상을 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